

서남해안 갯벌은 생태계 寶庫 ▶2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기아차 임협 타결…유통업체 특수 기대 ▶8

[kwangju.co.kr](http://kwangju.co.kr)

추신수 내셔널리그 첫 대기록 눈앞 ▶14

제19574호 1판 2013년 9월 16일 월요일 (음력 8월 12일)

## 추석민심 잡아라

긴 연휴 여야 대치정국 속 총력전 나서  
안철수 행보 가속·지방선거 기선잡기

어느 해보다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치권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역대 어느 추석보다 많은 출향인들이 고향을 찾을 것으로 보여 여야 모두 추석민심을 잡기 위한 사전 포석을 하느라 신경전이 치열한 것이다.

〈관련기사 3면〉

15일 정치권은 이번 추석 밤상에서 오를 이슈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국정원 개혁, 그리고 이를 둘러싼 여야 대치 정국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태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와 혼외 자식 논란 ▲내년 지방 선거 전망과 '안철수 신당'의 활약 여부 등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추석 밤상에서는 어느 명절보다 활발한 정치적 이야기가 만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여야는 이 같은 쟁점 속에 추석여론전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는 각오다.

새누리당은 이석기 의원 사태를 계기로 종북세력에 대한 비판여론을 한껏 부각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나아가 야권연대를 통해 종북세력이 국회에 입성했다고 비판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전단 27만부를 만들어 귀성객에게 나눠주기로 했다. 전단은 주택자금대출 지원 전환한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등 박근혜정부 6개월의 성과도 강조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 문제를 기치로 '민주주의 회복'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기로 했다.

당은 국정원 사태와 관련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국회 주도의 국정원 개혁,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등을 강

조하는 전단을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이 전단에는 ▲정부 세계개권안 비판 ▲경제민주화 후퇴 비판 등의 내용도 실었다. 민주당은 또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을 문제 삼아 정권의 '검찰 흔들기'를 집중 부각, 민주주의 대한 여론을 활기한다는 계획이다.

여당은 박 대통령의 소통 노력을 홍보하면서 이당의 장외투쟁을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야당은 회담 성과에 상관없이 국정원 개혁에 대한 현 정부의 무관심과 검찰에 대한 정권의 압력을 비판한다는 각오다.

안철수 의원 측도 추석을 계기로 전국적 관심도를 제고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추석 전 호남과 충청지역 실행위원회를 발표하는 등 전국 조직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지도부의 이 같은 전략 속에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평소 명절 때와 같이 지역구 행사와 사회 복지시설 방문을 준비하면서도 소속 당의 여론전을 효율적으로 펼칠 수 있는 방법을 찾기에 집중하고 있다.

또 지방선거 입지자들은 지방선거가 10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추석 연휴가 초반 기선을 잡는 분수령으로 보고 지역 곳곳을 돌며 얼굴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는 사상 처음으로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의 경쟁 체제 속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돼 입지자들의 발걸음은 어느 명절 보다 바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통시장 "오늘만 같아라"

15일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차례상에 올릴 생선과 과일 등을 사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광주 남광주시장으로 몰려들어 주차장 일대에 자리잡은 노점상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오늘 3자 회담

차대통령-여야 대표…채동욱 사퇴 결쳐 성과 미지수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와의 '3자 회담'이 우여곡절 끝에 예정대로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15일 '훈의 아들'의 희생 논란에 훈의원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회담을 거부해야 한다는 당내 강경론에도 불구하고, 참석하기로 결정하면서 한 달 반 이상 계속돼온 여야 대치 정국에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3·4면〉

김한길 대표는 이날 서울 천막당사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3자회담이 무의미해졌다"는 주장도 많지만 내일 3자회담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이번 회담이 꽉 막힌 정국을 풀 수도, 반대로 정국 경색이 오히려 심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대 현안인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에 있어 막판 생활으로 급부상한 '채동욱 사퇴'까지 발생하면서 여권과 이당의 입장은 더욱 벌어져 3자 회담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청와대와 민주당의 사전 의제조율 작업도 순탄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일각에서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부분적인 합의 도출마저도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 "내일 회담의 주요 의제는 국정원 등 기관의 정치개입 폐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찰총장 사퇴 문제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며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대통령이 준비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과 검찰 일각에서 제기하는 채 총장 사의 표명에 대한 '청와대 배후설'을 제기하며 회담에서 답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진실이 규명되면 깨끗이 해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사안을 의도적 프레임으로 몰아가서 청와대에 책임을 묻고 이런 저런 의혹을 제기하는 등 본질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공직사회를 흔드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배후설을 일축한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北에 태극기 휘날리고 애국가 울려 퍼졌다

남북 분단 이후 처음

평양 亞클럽 역도대회

남한 주니어 4명 메달



남북 분단후 처음으로 북한 평양에서 태극기가 펼려이고,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장면이 연출됐다.

'2013 아시안컵 및 아시아 클럽 대항 역도선수권대회'에 출전한 한국 선수단의 19세 이하 주니어 선수 4명이 모두 메달을 따내고 평양에 태극기를 드높였다.

김우식(19·수원시청)과 이영균(19·고양시청)은 지난 14일 평양 유경 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주니어 남자 85kg급 경기에서 다른 상대 없이 둘만의 대결을 펼쳐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나눠 가졌다. 시상식이 진행되며 태극기가 게양되고 애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북한 관중은 모두 기립해서 이를 지켜보았다. 〈관련기사 15면〉

이재광(19·고양시청)은 같은 날 주니어 남자 94kg급 합계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고, 권예빈(19-

김우식(수원시청)과 이영균(고양시청)이 지난 14일 북한 평양 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린 2013 아시안컵 및 아시아 클럽 역도선수권대회 남자 주니어 85kg급 경기에서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해 시상식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며 두 개의 태극기가 나란히 게양됐다.

김우식(수원시청)은 13일 주니어 여자 69kg급 합계에서 동메달을 거머쥐었다. 한국 선수단은 주니어 선수들의 활약으로 함께 종목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수확했다. 대한 역도연맹은 이번 대회에 광주은행과 보성군청 역도팀 등 성인 18명, 주니어 4명으로 선수단을 꾸렸다. 한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13일 '올림픽 통일팀의 꿈'이라는 제목의 시론에서 남북한이 2020

년 도쿄올림픽에 단일팀으로 참가하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송기동기자 song@

학교설립 59주년 (1954 ~ 2013)



## LIRIKOS



### 촉촉한 5ml의 바다

지구의 70%나 차지하는, 그러나 쉽게 다가갈 수 없기에 더욱 신비로운 바다 – 그 속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생명력이 기득합니다. 모두 어렵다는 이유로 유퇴장을 주목할 때 리리코스는 끊임없이 바닷속 새로운 발견을 통해 도전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양 심층수에서 수분의 비밀을 찾았습니다. 유해물질이 살기 어려운 온도 2°C의 순수한 생명력, 수백년간 다른 해수와는 거의 섞이지 않은 고유수의 생명력, 그리고 605m 바닥속 높은 압력에 응축되고 응축된 진하고 강한 생명력까지 – 리리코스는 이런 순수한 심층수를 5ml 작은 앰플에 담았습니다.



## 고농축 수분으로 힘있게 살아나는 수분피부 리리코스 마린 하이드로 앰플 EX

리리코스 마린 하이드로 앰플은 작습니다. 605m 깊은 바다가 응축하고 응축하여 만든 심층수를 그대로 담아 낸 수분 앰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기가 크지 않아도 피부가 아무리 건조해도 촉촉함이 힘있게 살아납니다.

이제 작지만 강한 바다 수분 앰플을 만나보세요.



리리코스는 뷰레이터 및 주요 백화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입처 문의: (주)모래사리 고객 상담실 080-023-5454 www.lirikos.co.kr